다이와보의 소취섬유「데오메타피」

노약자간호용 침구로 다시 등장

일본의 다이와보는 소취섬유 「데오메타피」를 사용한 소취이불 「그린라이프」를 노약자 간호용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다이와보는 당초에는 「데오메타피」를 사용하여 보통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과 같은 침구로 만들어 도매상을 통하여 시장에 내놓고 판매하여 왔다. 그러나 처음에는 노약자에 대한 간호를 중요하게 의식하지 못하였고, 판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 소취상품이 나오면서 경쟁이 심하게 되어 실(實) 소비자들에게 깊이 파고들지를 못하여, 「데오메타피」는 공중변소용 소취제 등의 비섬유용 소취제로 인식되었다. 최근에는 악취가 심한 공장폐기물의 소취 등의 산업분야로 용도를 넓혀가고 있어, 「데오메타피」는 산업용으로 인정받을 만큼, 강력한 소취소재가 되었다.

다이와보는 고령화사회로 진전하면서 노약자간호법이 제정되었고, 노약자간호가 사회문제로 크게 떠오르자 1년 전부터 정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노약자 간호용품으로서 침구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노약자 간호기관을 개발프로젝트의 모니터로 위촉하고, 고령자나 기동(起動)을 못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잘 수 있도록 편안한 이불과 요를 개발하고 판매방법도 개선하였다.

이번에 상품화된 소취이불 「그린라이프」는 덮는 이불이 3작품, 요가 3작품, 도합 6작품이 상품화되었다. 이들 상품의 특징은 「데오메타피」의 강력한 소취기능 뿐 아니라 원적외선 기능도 있으며, 이불잇에는 통기성이 좋은 “하니코움조직(honey comb weave)” 소재를 사용하여, 이부자리에 누워만 있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잠잘 수 있도록 복합적 기능을 갖게 하고 있다.